

증권사, 여성임원 비율 8% 그쳐... 최고경영자도 '전무'

전체임원 597명 중 여성은 49명
2022년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에도
증권사, 규제 준수 수준에 머물러

사회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주목되면서 각 업계에서 여성 임원 확대를 노력하고 있지만, 지난해 말 기준 증권사의 여성임원 비율은 8%에 그치면서 '유리천장'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각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 상위 10개 증권사의 여성임원 비율은 8.18%에 그쳤다. 전체 임원 597명 중 49명으로, 100명 중 약 8명에 불과한 비중이다. 3연임에 성공하며 자리를 지키던 KB증권의 박정림 전 대표가 물러나면서 금

〈자기자본 상위 10개 증권사 임원 성비〉
(지난해 말 기준)

증권사	총 임원	여성임원	비율
미래에셋증권	139명	13명	9.4%
한국투자증권	55명	2명	3.6%
NH투자증권	58명	7명	12%
삼성증권	31명	4명	12.9%
KB증권	64명	3명	4.7%
하나증권	45명	3명	6.7%
메리츠증권	53명	3명	5.7%
신한투자증권	60명	7명	11.7%
키움증권	48명	3명	8.3%
대신증권	44명	3명	6.8%
	597명	49명	8.18%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용투자업계 내 여성 최고경영자(CEO)도 전무한 상황이다.

증권사별로는 삼성증권(12.9%), NH투자증권(12%), 신한투자증권(11.7%) 등의 여성 임원 비율이 가장 높다. 다만 상위 3개 증권사도 두 자릿수를 소폭 넘긴 수준이다. 증권사 최초로 여성 CEO를 수장으로 맞이했던 KB증권은 4.7%에 그쳤다. KB증권은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 상위 10개 증권사 중 유일하게 여성이사가 없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한국투자증권은 55명의 임원 중 여성 임원은 단 2명으로 여성임원 비율 최하위로 드러났다.

자산운용사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운용자산 기준 상위 10개 자산운용사의 이사회 총 인원은 59명이지만, 이 중 여성이사는 4명(6.8%)뿐이다. 계

다가 주요 자산운용사 중 여성이사가 존재하는 곳은 신한자산운용, NH-아문디, 한국투자신탁운용 등 단 3곳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여성 임원 비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업계 자체에 남성이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며 "여성 임원들의 존재감과 ESG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22년 8월부터 이사회 성별 다양성 등이 담긴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증권사장은 이사회 이사회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2년 유럽연합(EU)도 사외이사 성별 균형 개선에 관한 지침을 발표해 2026년 6월 30일까지 여성(과소대표되는 성별)이 비상임이사(사외이사)

중 최소 40%, 전체 이사 중 30% 이상을 차지해야 하도록 규정하는 등 국내외에서 사외이사의 성별 다양성이 강조되고 있다. 다만 증권가는 규제를 준수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준성 한국ESG기준원 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리포트를 통해 "이사회 성별 다양성을 살펴본 결과, 이사회 내 여성 이사의 비율은 0%이거나 10% 미만인 비율이 대다수를 차지해 이사회 성별 불균형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과거에 비해 이사회 성별 다양성이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사회 구성 및 운영의 다양성 측면이라기보다 자본시장법 규제 준수라는 최소한의 의미에서 접근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엔터株, '하이브 내홍'에도 2분기 반등 기대

하이브, 전 거래일비 1.18% 하락
"장기적 관점에서는 변화 없을 것"
SM, JYP 소폭 상승... 영향 없어

엔터테인먼트 종목이 인기 그룹들의 컴백 등에 업고 2분기 주가 반등을 기대하는 와중에 '하이브 내홍'을 마주했다. 하이브의 주식은 연일 하락했지만 시장은 '단기변동성'일 뿐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이브는 코스피 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1.18% 내려간 21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인 22일에 7.8% 하락한 것보다는 낙폭이 적었지만 23일 오전 9시45분께에는 20만2500원까지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다. 이날 종가 기준 하이브의 시가총액은 8조7469억원으로 이를 동안 하이브의 시총은 8539억원가량 증발했다.

하이브는 22일 하이브 자본으로 설립한 어도어의 경영권을 민회진 대표 등이 탈취하려 한다며 감사에 착수한 사

실을 공개했다. 이에 민 대표가 "빌리프랩의 아이릿이 뉴진스를 카피(Copy·베끼기)한 문제를 제기하니 날 해임하려 한다"고 반박하면서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빌리프랩과 어도어는 하이브 산하의 별개 레이블이다.

시장에서는 엔터주가 2분기부터는 주요 엔터기업 인기 아티스트들의 컴백이 예고돼 있어 주가 반등을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연일 하락한 하이브 주가에 하이브 주주들의 한숨은 깊어진 모습이다.

하이브 주주 A씨는 "거의 쇼크 수준으로 주가가 떨어진다"며 "뉴진스 컴백을 앞두고 반등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주 B씨는 "엔터주가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아티스트가 아니라 대표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 더 심각하게 느껴진다"고 언급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하이브 내부 갈등 이슈가 향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

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이화정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악을 가정해도 하이브의 중장기 성장동력 훼손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당사 추정치 기준 올해 하이브 내 어도어의 올해 영업이익 기여도는 14%"라며 "만일 하반기 뉴진스의 활동이 중단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1개의 앨범(하반기 정규) 발매 차질에 그칠 것으로 보여, 올해 실적에 대한 영향은 10% 미만일 것"이라고 봤다.

박수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도 "단기 멀티플 영향 있겠으나 롱텀 뷰는 변화 없을 것"으로 관측했다. 오히려 "하이브는 장기적 관점에서 멀티레이블 체제의 견고함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하이브의 주가는 떨어진 하루였지만 SM(종가 86400원, 5.58% ↑), JYP엔터테인먼트(6만8200원, 1.0% ↑) 등의 주가는 소폭 상승하며 엔터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서봉균 삼성자산운용 대표이사(앞줄 가운데), Christian Magoon Amplify 대표이사(가운데 왼쪽), 임태혁 삼성자산운용 상무, 박준규 주 뉴욕 총영사관 부총영사 등이 22일 미국 뉴욕거래소에서 열린 '오프닝 벨'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삼성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뉴욕거래소 '오프닝벨' 참여

'앰플리파이 삼성 SOFR ETF' 상장
토종 ETF, 美 증시 수출 첫 사례

삼성자산운용은 '앰플리파이 삼성 SOFR ETF' 상장을 기념해 22일(현지시각) 장 시작을 알리는 뉴욕거래소 '오프닝 벨' 행사에 참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오프닝 벨 행사에는 서봉균 삼성자산운용 대표, 임태혁 ETF운용본부장과 크리스티안 마군 앰플리파이 대표, 박준규 뉴욕총영사관 부총영사 등이 참석했다. 오프닝벨 이후 삼성자산운용은 앰플리파이와 함께 SOFR ETF 상품 소개 세션을 진행했다.

앰플리파이 삼성 SOFR ETF(SOF)는 삼성자산운용의 전략적 제휴사인 A

mplify가 뉴욕거래소에 상장하고 삼성자산운용 뉴욕현지법인이 운용을 전담하고 있다. SOF는 삼성자산운용이 지난해 3월 국내 증시에 먼저 상장한 KODEX 미국달러SOFR금리액티브ETF의 구조를 복제한 상품으로 국내 토종 ETF가 미국 증시에 수출된 첫 사례다.

SOF는 미국의 무위험지표금리(SOFR, 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지수 수익률을 추종하는 상품이다. SOFR가 미국채를 담보로 하는 1일 물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일 산출되는 지표금리인 만큼 SOF는 손실없이 연 5% 수준의 하루치 초단기금리를 복리로 쌓아갈 수 있는 달러 파킹형ETF다. /원관희 기자

"반도체 실적부진, 일시적 가능성... 테슬라는 기대감 소멸"

해외주식 Click
SOXL 순매수 1위... 1.1만달러 유입
테슬라 하락에도 8182만달러 매수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반등을 기대하며 반도체주 3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테슬라 등을 집중 매수하고 있다.

2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주(4월 16~22일) 서학개미 순매수 1위 종목은 디렉시온 테일리 세미컨덕터 볼 3배 ETF(SOXL)로, 1억1981만달러가 유입됐다. 이 ETF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3배 추종한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어 지난 3월 7일 5100선을 돌파하는 등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이내 하락 전환하며 약

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ASML의 실적 부진과 TSMC의 하향 조정 소식까지 겹치면서 SOXL은 17~19일 3일간 24%가량 떨어졌다.

시장에선 반도체주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는 지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즉 반도체 기업의 실적 부진은 일시적 현상일 것"이라며 "여전히 AI 관련 산업의 성장성은 유효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서학개미들은 반도체주 외에도 주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테슬라를 8182만달러 어치 사들였으며, 테슬라의 하루 주가 수익률을 2배로 따르는 디렉시온 테일리 테슬라 볼 2배 ETF(TSL)도 1471만달러어치 순매수했다. 테슬라주는 지난 15일 직원 10%가량을 감원

한다는 소식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150달러대로 내려앉았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은 테슬라 주가가 바닥을 찍은 것으로 보고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테슬라의 주가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테슬라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유럽과 중동에서도 전기차 가격을 인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3.40% 내린 142.0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1월 24일(143.89달러) 이후 약 15개월 만의 최저치다. 테슬라는 오는 23일 올 1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김광수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테슬라는 1분기 판매량 쇼크로 인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미래에셋증권, 美 AI·방위산업 ETN 상장

3종목 편입... 업계 최초 상장

미래에셋증권은 미국 인공지능(AI)과 방위산업을 테마로 3종목만 편입한 성장형 상장지수증권(ETN)을 한국거래소에 업계 최초로 상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상장하는 '미래에셋미국 AI TOP3 ETN'은 미국에 상장된 기업 중 AI 비즈니스와 연계된 사업을 주로 영위하면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3종목에 동일가중 1배수로 투자하는 전략을 가지며 현재 기준 구성종목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3종목이다. 미래에셋 미국 방위산업 TOP3 ETN

은 미국에 상장된 기업 중 방위산업을 주로 영위하면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3종목에 동일가중 1배수로 투자하는 전략을 가지며 현재 기준 구성종목은 RTX, 록히드마틴, 노스롭 그루만 3종목이다.

동일한 구성종목으로 추종 배수를 2배로 한 ▲미래에셋레버리지 미국 AI TOP3 ETN ▲미래에셋레버리지 미국 방위산업 TOP3 ETN도 동시 상장된다.

해당 ETN은 환노출형으로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배당소득세가 없다는 이점도 있다.

/허정윤 기자